

귀한 동역자님께,

샬롬, 먼저 새해 인사드려요(쑤어 쓰더이 츠남 트머이 Happy new year). 올 한 해, 주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12 월 29 일) 제자교회 크리스마스 예배와 파티는 진정 생애 잊지 못할 큰 기쁨의 축제였습니다. 올해로 세번째를 맞은 이번 모임은, 이전과 달리 태신자 작성과 함께 관계 전도로 초청하였습니다. 주일학교 특송, 대학부 스킷, 특주와 설교의 1부 예배, 그리고 식사와 게임의 2부 파티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깜뽕짬 단기선교후 저희는 많은 시간을 함께 나누고, 많은 이들과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함께 보냈습니다.

스토리를 쓰신 예배 Story telling Worship



29 일 예배는 11 시이나, 7 시가 조금 넘어 준비하는 청년들이 왔습니다. 예배준비, 장식과 점검, 그리고 음식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캄보디아 전통 요리를 자칭한 한 자매가 튀김 요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8 시가 넘어, 생각치 못했던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전이었습니다.



캄보디아는 나라 전체가 베트남과 태국에서 전기를 유선으로 수입해서 씁니다. 그래서, 전력량이 부족할 때는 지역별로 부분 단전을 하곤 하는데, 지금은 아주 더운 때가 아니라 최근 한달동안은 그런일이 없었습니다. 여러곳에서 밥솥을 빌려 90 명분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당장 밥을 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 밖에 할 수 없을 뿐, 간절히 기다렸으나 끝내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예배 시작이 가까이 되어, 급히 밥솥들을 차에 실어 옆 동네 선교사님댁으로 보냈습니다. 그 사이 사람들은 쉬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올 해는 이웃집 마당을 주차장으로 빌려, 모든 오토바이를 그곳에 세우게 하였고, 교회의 모든 가구를 치우고, 벽부터 대문(Wall to Gate)까지 의자를 놓았었는데, 모두 차고, 이후에 온 이들은 바닥에 앉거나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11 시가 넘어, 정말 예배를 시작해야 하였습니다. 진행하는 형제가 초초해했습니다. 그래서 정선교사가 먼저 환영과 시작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지금 교회에 전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쩌면 축복의 기회입니다. 오늘 정말 생애 잊지 못할, 마음으로 부터의 진실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감사하며 시작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시작되는 순간, 예배당이 갑자기 환해졌습니다. 전기가 들어온 것입니다.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나님이 '됐다'라고 하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찬양을 하고, 주일학교 어린이 특송에 이어, 대학부 스킷 드라마, 그리고 특주와 설교가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사랑스럽고 소중한 영혼들이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였습니다. 특주는 예술대학의 첼로와 색스폰 선생님이 오셔서 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예배전에 전화기 고기로 했었는데(?), 순간 수십대의 전화기를 든 손들이 올라오더니 사진과 동영상을 찍는 것이었습니다. 이또한 생애 잊지 못할 약기를 처음 본 것이었습니다.



설교는 간단하나 명확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한가지 목적을 따라 태어나시고 사셨는데, 그것은 십자가에 이르러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는 것이었다고 나눴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삶 모두를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 차례가 아니겠느냐 하였습니다.

식사와 파티 Party



식사시간, 저희는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었습니다. 밥차는 다시 돌아왔고, 한국 음식을 처음 먹어보는 이들은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식사를 마친 이후 게임이 이어졌습니다. 교회와 집으로 쓰는 모든 층을 다 활용하여, 7 개의 스테이션을 만들어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PS2 도, Wii 도 없는데, 저희가 더 재미있었습니다. 페이스페인팅을 하면서는 모두가 어린이가 되었습니다.



7개 팀이 모든 스테이션을 마치고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종목별 우승자를 가리고, 우승팀을 가리고, 최종 그랑프리를 뽑아 시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익 입장으로, 예수님 생일 축하 노래를 함께 부르는 것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돌아가는 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배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오늘의 예배와 모든 시간을 통해 생애 잊지 못할 순간을 그 영혼에 새겨주셨습니다.

수십대의 모토도 모두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후 저희 부부는 늦은 밤까지 청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고백(기도)과 함께 행복히 잠들었습니다.

'Thank you, Lord. It was an unforgettable day to us. Good night!'



사랑하는 동역자님, 이 땅의 소망은 저희 때문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들 가운데 보여줍니다. 한번의 예배가 아닌, 우리 삶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며,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감사와 기쁨을 나눠드립니다.

2014년 1월 2일
정지웅/은영, 온유, 주연 올림

Episode

예배전 전기가 나갔을 때, 캄보디아 전통 생선 튀김 요리를 하던 세레이로앗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자, 핸드폰을 꺼내 비추며 요리했습니다. 그러더니 기름이 자꾸 튀어,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앞 창을 내리고 요리하였습니다. 한손에는 생선, 한손에는 핸드폰, 머리에는 오토바이 헬멧.. 참 재밌고 사랑스런 모습이었습니다.

'세레이로앗, 크레용팝보다 더 멋있었어!'

